

‘고창 칠암리 고분’ 전북도 기념물 지정 나섰다

전북 유일 전방후원형 고분 마한·백제 문화 규명 중요 유적 역사적 가치·의미 주제 학술대회

고창 향토문화유산인 ‘고창 칠암리 고분’의 전북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

고창군은 지난 17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고창 칠암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고창 칠암리 고분군’은 앞쪽은 네모난 방형이고 뒤쪽은 동그란 원형의 형태가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 고분이다.

고창 전방후원형 고분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고분으로 우리나라 전방후원형 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됐고 가장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국내 전방후원형 고분은 총 12개 유적 15기 정도로 고창 칠암리 고분군 외에는 영산강유역의 평지나 낮은 구릉에 단독으로 존재한다.

‘고창 칠암리 고분군’은 총 3기가 확인됐으며 비

교적 높은 구릉 능선에 입지한다.

또 매장시설도 돌방무덤(석관형 석실) 형태로 다른 전방후원형 고분과 차이가 있어 축조집단의 성격과 배경을 이해하고 마한·백제문화를 연구 및 복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학술대회는 ‘고창 칠암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전방후원형 고분에 대한 고고·역사 자료 등을 통한 조사성과, 고분의 특징, 축조배경, 보존·활용 방안 등 4개 주제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로 2015년 고창 칠암리 고분군을 직접 조사한 대한문화재연구원 임지나 부원장이 ‘고창 칠암리 고분군의 조사성과와 가치’에 대해 발표했고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이진희 책임조사원과 토론했다.

제2주제로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이택구 원장이 ‘한반도 전방후원형 고분형 고분의 특징과 성격’을 주제 발표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전방후원형 고분을 비교 검토하고, 전북대 김낙중 교수가 토론했다.

제3주제로 한국외국어대 김영심 교수가 마한·백제, 왜(倭)에 대한 역사기록을 검토해 ‘문헌을 통해 본 전방후원형 고분의 축조배경과 피장자’를 주제 발표하고, 원광대 이문형 책임연구원과 토론했다.

제4주제로 국립부여박물관 신민철 학예연구사가 한입 고분유적 보존·활용 현황을 검토해 ‘고창 칠암리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남원시청 최규호 학예연구사와 토론했다.

학술대회의 종합토론은 대한문화재연구원 이영철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는 ‘고창 칠암리 고분군’이 영산강유적 중심으로 분포한 전방후원형 고분이 고창에서 분포한다는 자체 만으로도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어 입지와 분포, 구조적 특징과 함께 고창지역에 분포하는 마한 지역사회 구조와 계층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아 전북도 기념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는 데 공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칠암리 고분이 ‘고창 봉덕리 고분군’ 등과 함께 우리나라 마한·백제문화의 특징과 당시 대외관계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됐다”면서 “고창지역 마한·백제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보존·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향토문화유산인 ‘고창 칠암리 고분’.

민·관 합동 정읍 농업용수 수질오염 해법 찾기

한국농어촌공사, 수질환경보전회의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하인호)가 지난 15일 지자체와 학계, 환경단체, 지역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수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환경보전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농업용수 수질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직접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질환경보전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읍지사의 유지관리 대한 홍보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수질오염 저감 방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과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하인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은 “지역 저수지 여러 곳이 오염돼 앞으로 정화 작업을 지속적



으로 실시해 수질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오염원으로 저수지 상류에 유입된 숙성되지 않은 퇴비와 액비 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심덕섭 고창군수 ‘지역 농업발전 선도인상’

고창군 심덕섭 군수가 최근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펼쳤던 노력을 인정받아 ‘2023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농업중앙회가 주관해 지난 6월부터 농협지역본부와 시·군 농정지원단이 추천한 자치단체장의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가렸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농업 관련 사업들을 지역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대책을 비롯해 전국 최초의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제시, 드론방제단 운영 등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농업의

어려움 해결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를 2025년까지 성송면 판정리 일대에 구축할 예정으로 미래 농업을 위한 차세대 사업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고창군 농촌협약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589억원 규모의 다양한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이던 ‘고창군농업인회관 건립’과 농업 보조사업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등이 신속하게 결정·시행되면서 지역 농정에 대한 심 군수의 애정과 관심이 돋보이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 이달말 종료

올 1066명 참여 1857권 구입

남원시가 4년간 추진해 온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이 남원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한 달 이내에 남원시공공도서관(시립·어린이청소년)으로 구입한 책과 도서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2권 최대 4만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10월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책값으로 유입된 도서는 시민들의 선호도가 적극 반영되면서 도서 대출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올해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는 남원시민 1066

명 참여해 1857권의 책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은 확보한 예산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지원을 마감하기로 했다.

남원시공공도서관은 올해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2024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 A씨는 “책값이 지원이 되다보니 지역서점에서 책도 구입하게 되고, 책도 더 읽게 됐다”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인생 고민’ 심리학자의 조언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강연

최근 방송 등에서 올바른 삶을 위해 내면의 감정을 사회와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로 호응을 얻고 있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남원을 찾아 강연을 펼쳤다.

남원시는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오는 23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동기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 인지심리학자로 알려진 김경일 교수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크고 작은 고민에 대

해 그만의 유쾌하고 섬세한 조언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멘토로 인기가 높다.

‘어쩌다 어른’,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등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최고의 강사로서 평가되는 인물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를 짚어 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